

중국, WTO 가입 5주년 농업현황

박 은 철*

중국은 WTO 가입시 농업분야에서 당초 우려했던 대로 밀 등 취약 농산물의 수입급증은 없었으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앞서 2004년부터 농산물이 무역적자로 반전되어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중기 대책으로 2006년에 ‘농산물 수출 11차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가공농산물 위주로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WTO 가입 5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농업의 변화를 살펴본다.

1. 중국의 WTO 가입

중국은 5년전인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하였다. 가입 5년 후인 지금까지 전 부문에서 책임과 의무의 약속을 이행하여 왔다. 중국의 농업분야 역시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국제시장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WTO 가입초기 중국에서 농업은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주요 쟁점은 밀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중국 농업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중국의 식량문제는 중국 농업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 외에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중국 농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였으나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WTO 가입 후 중국 농민들이 더욱 국제표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노력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농촌경제부 부부장 서소청(徐小青)은 “WTO 가입은 중국농업에 있어서 의의가 매우 크다” 라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2. WTO 가입후 농산물 수출입 동향

현재 중국은 전반적으로 WTO 가입시 합의사항의 이행에 노력해왔다. 5년 내에 WTO와 합의한 협정서에 근거하여 중국 농산물의 관세를 계속해서 감축하여 평균관세율은 이미 2001년 23%에서 2005년에는 15%로 감축되어 세계평균 관세수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세계에서 농산물관세가 최저인 국가의 하나이자 시장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무역액에서 볼 때 2001년에는 겨우 260여 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528억 달러에 달해 무려 2배가 증가하였다. WTO 가입이후 중국 농업은 WTO 가입시 합의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이와 동시에 농산물 무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다음으로 농산물 수출이 많은 세계 5대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고, 유럽연합,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이 많은 세계 4대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그중 농산물 수출액은 2001년의 16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71.8억 달러로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세계평균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더구나 2006년 수출액은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역사상 최대 수출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농산물 수출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원만히 증가하여 왔으며, 수출 다원화의 형태를 취하여 전통적 수출국가인 일본, 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 외에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여 왔다.

3. 중국의 WTO 가입 영향 및 대책

중국은 수출의 원만한 증가와 동시에, WTO 가입 후 만 3년이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과거 20년 동안의 무역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었다. 2005년 중국의 농산물 무역총액은 558.3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14.7억 달러였으며, 2006년에도 농산물의 무역적자는 전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전체산업에서 무역흑자가 증가되고 있으나 농산물은 오히려 무역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농촌경제부 부부장 서소청은 이렇게 직면한 농산물 무역적자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의 농산물 무역적자가 경종농산물의 생산 및 농민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중국정부는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이 농업현대화를 시행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제고시키고, 농업현대화에 박차를 기하여야 하며 노동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만이 외국으로부터 밀려오는 여러 가지 충격을 막고 수입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반년 전에 농산품 수입시 ‘네가티브시스템’에서 ‘포지티브시스템’ 제도를 실시하여 이를 여실히 증명하였다.

사실 중국은 WTO 가입 후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거치게 하기 위하여 농업

-
- 1) 과거 일본은 농산물 수입시 안전성 검사 등에서 “네가티브시스템”을 실시하여 왔으나 얼마 전에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안전성 검사항목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검사와 감역이 강화되어 안전성이 취약한 중국의 수출농산물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분야에 많은 혜택을 주는 농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농산물 수출의 제1차 5개년 발전계획인 ‘농산물 수출 11차 5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농산물 수출 목표액을 380억 달러로 정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농산물 수출의 속도를 줄이는 대신 더욱더 품질과 효율에 역점을 두어 기업 스스로의 품질과 안전의 관리능력을 높이고 정밀가공농산물 수출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²⁾.

4. 향후 전망

중국의 농업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농산물의 품질이 계속해서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수출규모는 필연적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무역 마찰도 더욱 증가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 농업은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더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많은 인내와 노력을 통하여 품질과 안전성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ccn.mofcom.gov.cn/swxw/gj_news.php?eid=18226(中國商品网) 완역

2)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종전에는 단순히 수출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향후에는 수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물량 보다는 고품질·안전농산물,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가공농산물 위주로 수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